

“나무 심는 출판인” 조상호 나남출판·나남수목원 회장

“책 만드는 마음과 나무 심는 마음은 하나”



경기도 포천 나남수목원에서 반송(盤松)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조상호 회장.



책박물관 내부 아카이브 공간.

책과 나무. 조상호(68) 나남출판·나남수목원 회장에게 물은 일맥상통한다. 40년 가까이 3600여권의 책을 만들면서 ‘지성의 숲’을 일궈다. 또한 수목원을 조성해 ‘생명의 숲’을 가꾸고 있다. 일업일생(一業一生), ‘언론 의병장’을 꿈꾸며 일관되게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조 회장은 “삶이 책이고, 그 책을 있게 한 나무가 돼버렸다”라고 말한다.

그는 사회과학을 비롯해 언론학, 문학, 사회복합학 분야 3600여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며 지성의 숲을 가꾸고, ‘사상의 저수지’를 조성했다.

40년 가까운 일업일생(一業一生), 출판인생이다. 그리고 출판 이외의 유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공이산’(愚公移山·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둔다)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수목원이다.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자리한 사육에서 나남수목원까지는 80여km, 1시간 30여분 거리다. 월·수요일은 출판사 사무실에서 원고 교정을 직접 보고, 나머지 목·토요일은 수목원에서 나무를 관리한다.

굳이 출판인이나 출판장이라는 표현 대신 ‘책장수’(책장사)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출판장이 조 회장에게 나무는 우연처럼 다가왔다. 1997년 IMF 때 파주 교하에 도서창고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조건으로 부실채권인 임야 1만5000평(4만9586㎡)을 떠안은 것이다. 그곳에 작나무 묘목 500 그루를 시작으로 많은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곳을 가로질러 도로가 뚫리면서 부득이 나무를 옮겨야 했다.

1950년 장흥서 태어나 ‘조지훈’ 가슴에 품었던 문학 청년 29살에 출판계 뛰어들어 40년간 토지 등 3600여 권 출판 IMF 때 부실채권 임야 1만5천평 떠안으며 나무와 인연 “一業一生” 수목원은 출판 이외 유희에 빠지지 않게 해 줘

이후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만한 곳을 어렵사리 물색한 곳이 현재 수목원이 들어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산지락(20만평)이었다. 처음에는 ‘변잡한 도시 속에서 자신의 작은 녹색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으나 점차 나무라는 생명에 애착을 갖게 됐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나남수목원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다.

조 회장은 수목원에 도착하자마자 흙은 등산화로 갈아 신은 후 작업용 조끼를 걸치고 밀짚모자를 썼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알겠어요? 순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하고 부상으로 받은 참나무입니다. 수입업체 이름을 따서 ‘대왕 참나무’라고 하는데 ‘순기정 참나무’라고 고쳐 부르면 좋겠어요.”

수목원 오솔길 좌우에 심어진 목백합나무와 자작나무, 구상나무, 히어리, 계수나무, 생강나무, 팔배나무, 산뽕나무, 자귀나무, 노각나무 등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무도감을 펼치듯 상세했다.

수목원 입구에서 10여분을 걸어 오르면서 ‘책 박물관’에 다다른다. 지난해 5월 개관했다. 3층 규모(연면적 1721㎡)로 1층은

북카페, 2층은 나남신서, 3층은 아카이브 공간이다. 아카이브에는 1970년대 군대에서 만나 평생 우정을 나눴고 있는 오성근 서울대 불문학과 명예교수와 김동의 전 용인 송담대 총장의 책이 1000권씩 먼저 들어왔다. 조 회장은 “한 어른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땅에 묻히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10여명, 1만권을 예상하고 있다.

조 회장은 1950년 장흥군 장흥읍에서 태어났다. 광주고(18회)를 거쳐 197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2학년 때인 1971년 8월 광주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조 회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본팩트를 교내 신문인 ‘한맥’에 르포기사로 게재했다.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에서 기사 중 일부를 과장해서 인용하면서 필화를 겪었다. 경찰 수배를 받은 조 회장은 원주로 피신해 남매가 생활을 두 달간 하기도 했다. 결국 대학에서 제적되고 강제 징집됐다.

조 회장이 출판계에 뛰어들 때는 29살 때인 1979년 5월이었다. 나남이라는 사명(社名)은 ‘나와 남이 어울려 사는 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지를 꿈꾸었던 그는 언론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첫 책은 버트런드 러셀의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나중 ‘희망의 철학’으로 제목 변경)였다.

조 회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정통과 시인이자 국학자인 지훈 조동탁 선생을’ 큰 바위 얼굴’처럼 가슴속에 품었다. 광주고 1학년 겨울 방학 때 시인이 광주 시민회관에서 두루마기 차림으로 ‘선비의 지조’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조 회장의 지훈 사랑은 남다르다. 첫 사육을 ‘지훈 빌딩’이라 명명했고, 외아들 이름조차 ‘지훈’으로 지었다. 현 파주 사육입구에도 지훈의 시 ‘인쇄공장’을 동판에 새겨놓았다. 절판됐던 조지훈 전집(9권)을 1996년에 새롭게 간행했고 2001년 5월부터 숙원이었던 ‘지훈상’을 제정해 18회째 운영하고 있다.

조 회장은 언론학과 문학, 사회복지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출간했다. ‘쉽게 팔리지 않지만 오래 팔린다’를 모토로 삼았다. 그중에서 나남을 출판업계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든 저서로 김준연 전 고대총장의 회고록 ‘김준연의 현대사장정’(5권)을 손꼽는다. 또한 박경리 작가의 ‘토지’와 ‘김 약국의 딸들’이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과학 서적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가 됐다.

내년이면 나남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39년 동안 ‘책의 숲’을 걸어오는 동안 조 회장의 삶은 책 그 자체였다. 60대 ‘청년’인 그는 현재 수목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을 쓰고 있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15m 3차원 물커튼 ... 예술·과학의 ‘영원회귀’ ACC 문화창조원 융복합콘텐츠 전시 ... 14일까지 무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0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2018 창제작센터 융복합콘텐츠 쇼케이스 ‘영원회귀(Eternal Recurrence)’ 전시 오픈식을 개최했다.

‘영원회귀’는 자연과 인간의 영원한 연결고리인 ‘물’을 매개체 삼아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으로,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미디어랩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가 협업한 전시다.

‘영원회귀’는 바닥면 60m×22m, 높이 15m의 대형 공간에 설치되는 복층 구조를 가진 3차원 물방울 조형 생성 장치(3차원 워터 커튼)를 말한다. 복층구조의 3차원 워터커튼에서 땅으로 하강하는 물방울을 조형 시퀀스의 핵심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 모양의 물방울을 조형한다.

이 작품은 물방울들이 생성, 변화되는 과정 자체를 표현하며 자동기계를 적극 사용, 새로운 시각예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 1관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한편 ‘영원회귀’에 적용된 ‘워터 스크린’ 기술은 내년 개최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야외공연에서 대형 로보틱스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공연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망철 국장의 추천 ‘원더풀 라이프’ 광주극장 13일 ‘시네마 가이드 맵’

광주극장에서는 매일 한차례씩 문화, 예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초빙해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네마 가이드 맵’을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유망철 광주시네마테크 사무국장이 추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가 상영된다. (13일 오후 7시)

천국과 지상의 중간역인 ‘립보’에서 7일 안에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골라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원더풀 라이프’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쓴 첫 작품이다. 감독은 10년간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삶과 죽음, 기억에 관한 오랜 고찰의 시간을 가졌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소중한 기억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시작으로 본 감독의 신선하고도 따뜻한 시각은 평단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화는 산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 비평가 협회 등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